부처님 입과 법으로 태어나야 '佛子'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⑥ 사리불의 감격

그때,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곧바로 일어나 두 손 모으고, 부처님의 존안을 우러러보면서 사뢰었다.

"지금 세존으로부터 이 가르침 듣고, 마음이 기쁘고 경탄스럽나이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법을 듣고, 여러 보살들이 수기를 받는 것을 보았는데, 저희들은 끼지 못하여 스스로 슬퍼하여 여래의 한량없는 지견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산림의 나무 밑에 홀로 앉아 있거나 거닐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법의 성(城)에 들었거늘, 어째서 여래께선 소승의 법으로써 우리를 제도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나 이는 저희들의 허물일 뿐 세존 탓이 아니시니, 왜냐하면, 만약 저희들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는 데 원인이 되는 가르침을 설하실 때를 기다렸던들 반드시 대승으로 구제받았을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방편으로 설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여 처음 부처님 법을 듣자마자 곧 그것만 믿고 사유하여 깨달았다고 생각해 버렸나이다. 그리하여 세존이시여,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밤낮으로 항상 자책만 하였는데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던 놀라운 법을 듣고, 온갖 의심이 끊어져 몸과 마음이 태연하여 상쾌한 편안을 얻었으니 오늘에야 제가 참으로 부처님 제자라.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났으며, 법으로부터 변화되어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의 유산을 얻은 줄 알겠습니다."

〈비유품〉에 나오는 첫 장면이다. 법화일승법을 듣고 사리불이 경탄하는 내용이다.

법화법문을 듣기 이전에는 소승의 법으로써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야 듣지 못했던 놀라운 법을 듣고 참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감격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불자(佛子)'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났으며(從佛口生), 법으로부터 교화되어 태어난(從法化生) 사람이 불자라는 것이다.

이 말은 〈화엄경〉에도 똑같이 나온다. 육신의 탄생 이후 새로운 정신으로 태어난 제2의 탄생이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다. 인격(人格)에 불격(佛格)과 법격(法格)이 갖춰졌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대승경전이 나오고부터 경문에 소승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며 소승을 평가절하하여 거리를 두는 현상이 나타났다. 〈법화경〉이 대표적이다. 법화 법문을 듣기가 거북하여 5천 사부대중이 물러갔다는 이야기와 부처님 본래의 법문인 일승법은 소승(小乘)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다분히 이승(二乘)을 배격하기 위한 말이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한 말이다. 같은 불교에서 왜 나중에 설한 부처님의 말씀이 먼저 설했던 말씀을 뒤집어 부정해버리는가? 비록 부처님 설법이 중생의 근기에 따른 방편설이라 하더라도 먼저 하신 말씀을 뒤에 가서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의 진의(眞意)를 파악하기가 실로 어려운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진의가 〈법화경〉에서 설해졌다고 한다.

규봉 종밀(圭峰 宗密, 780~841)은 〈선원제전집도서〉에서 불교 전체를 선(禪)과 교(敎)로 나누어 각각 3종(三宗)으로 구분, 서로 짝을 맞추어 선교일치를 주장하였다. 규봉의 교삼종(敎三宗), 선삼종(禪三宗)은 각각의 이름이 있으나, 쉽게 말하면 '있다(有)' 고 말한 것은 상종(相宗) 법문이고, '없다(無)' 고 말한 것은 공종(空宗) 법문이다. 그리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非有非無)' 고 말한 것은 성종(性宗) 법문이라 하였다. 이는 모두 말로써 표현하는 논조(論調)를 가지고 구분한 것이다.

부처님 일대시교(一代時敎)를 두고 초기에는 유(有)를 설한 상종 법문이라 하고 중기에는 공(空=無)을 설한 공종 법문이라 하며 후기에는 비유비무(非有非無)를 설한 성종 법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논조를 달리하여 설했기 때문에 경전에 따라 주장하는 바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사리불은 법화 법문을 듣고 부처님 유산을 얻은 것 같다고 감격해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타인 행복 걱정해 주는 것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⑥ 불살생계의 실천

오계(五戒) 가운데 첫 번째인 불살생계(不殺生戒)는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와 자이나교 등에서도 중요하게 여긴다. 불살생계는 모든 생물의 살생, 살생의 원인 제공 또는 살생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생물은 아주 작은 벌레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불교 용어 가운데 유정(有情)에 해당하며, 초목이나 산천 등을 가리키는 비정(非情)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자이나교와 달리 극단적인 불살생계의 실천을 권장하지 않으며, 양극단을 피하는 중도(中道)를 강조한다. 또 불교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벌레를 밟아 죽이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벌레를 밟아 죽이는 것을 더 나쁜 것으로 여긴다. 다시 말해 불가피한 살생 행위보다 의도적인 살생 행위를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그 이유는 어떤 행위의 선악은 행위의 '의도' 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살생계는 모든 생물, 즉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의도적인 살생 행위를 삼가는 것이다.

살생 행위는 여섯 가지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직접 살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에게 살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화살이나 총을 쏘거나 수류탄 또는 돌 등을 던져서 살생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함정을 파거나 덫을 사용하여 살생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진언이나 마술로 살생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마력(魔力)이나 영력(靈力)으로 살생하는 것이다.

이외에 살생 행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 두 번째는 그 존재가 생명체라는 인식, 세 번째는 살생하려고 하는 의도, 네 번째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살생 행위, 다섯 번째는 살생 행위에 따르는 실제 죽음이다. 아울러 살생에 따른 죄의식의 정도는 살생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희생물의 크기와 지적 정도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동물보다는 인간을, 작은 동물보다는 더 크거나 많이 발전된 동물을 죽이거나 해를 입히는 것을 더 나쁘게 여긴다.

그러나 의도적인 살생 행위를 삼가는 것만으로 살생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누군가로부터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갈등이 있게 되면 마음속에 불건전한 의도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불건전한 의도를 가지게 된다면 불살생계를 지키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불살생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덕성인 자애[慈]와 연민[悲]을 계발해야 한다. 모든 중생을 향한 자애심으로 충만하다면 살생의 주요 원인인 분노를 제거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연민이 생긴다면 폭력에의 욕구가 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애와 연민이 충만해진다면 다른 존재에 대한 살생 행위나 폭력 행위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불교학자인 피터 하비(Peter Harvey)는 '각각의 계율은 삼감으로써라는 부정적 언어로 표현되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점차 불선(不善)한 행위의 뿌리가 약해짐에 따라 긍정적 덕성을 표현하게 된다' 고 설명한다. 그는 '불살생계의 긍정적인 상대(相對)는 친절함과 자비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걱정해 주기 위한 것' 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불살생계를 실천하는 사람은 점차 살생하려는 의도가 약해져서 자애와 연민으로 다른 존재의 행복을 걱정해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불살생계를 실천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의도적인 살생 행위를 삼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⑥ 철제 발우와 고대 인도의 야금술

왜 철제 발우 사용했을까?

출가사문이 지닐 수 있는 개인 소유물은 각 종교마다 조금씩 달랐다. 불교 수행자들은 대략 일곱 가지에서 여덟 가지 정도였는데, 옷과 발우를 기본으로 해서 바늘과 지팡이, 치목(양치하는 나뭇가지), 허리띠, 지팡이 등과 같은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발도구 같은 것도 포함된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율장의 기록들은 석가모니보다 훨씬 후대에 정해진 규정일 것이다. 이러한 도구들 가운데 몇 가지는 금속으로도 제작되는 것들이 있는데, 발우(鉢盂)나 바늘, 그리고 이발도구 등과 같은 것이다.

발우는 대체로 철이나 나무, 토기 등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무나 토기로 만든 발우는 수분으로 인해 쉽게 썩거나 파손될 수 있었다. 어떤 전승에 따르면 돌이나 나무, 기타 금속으로 만든 발우는 금지되기도 하였다. 혹자는 토기 발우가 아니라 도자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설사 도자기술이 있었을지라도 도자기 제작의 난이도나 수행자들이 지닌 채 쉽게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철제 발우도 그 제작이 간단하지 않으며 견고성을 제외하면 휴대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왜 철제 발우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남는다. 단순히 고대로부터 인도에 철이 풍부하고 야금술이 뛰어났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현재 인도나 파키스탄 등지의 남아있는 고대의 발우는 쇠로 만든 발우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 최소한 기원후 1, 2세기경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석가모니 당시 이런 형태의 발우를 실제로 사용했는가는 의문이지만 탁실라 등지에서 보이는 철제 발우는 현재의 모양과 거의 흡사하다. 특이한 것은 어떤 철제 발우는 녹슬어 떨어져 나간 바 없이 매우 표면이 깨끗하여 거의 수십 년 혹은 백여 년 전의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고대 인도인들이 철제 발우를 만들 때 주물(鑄物)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담금질을 거듭하며 두들겨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 산화를 늦추거나 자연적인 표면처리를 의도했을 수도 있다.

고대 인도의 야금술에 대한 기록은 후기 베다 시기부터 분명히 나타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철(ayas)의 활용에 대한 단서들이 많지만, 이 시기 이후에 더 분명한 설명들이 등장한다. 담금질(pīta)과 주조(śaikya)에 대한 묘사도 등장한다. 이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는 현재의 유산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델리의 꾸뚭 미나르에 가면 굽타왕조의 유적지인 우다야기리에서 옮겨온 7미터 가량의 철기둥이 서 있다. 놀랍게도 이 기둥은 연철을 두드려서 제작한 것일 뿐 아니라 1500년의 시간 동안 야외에서 녹슬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한 채 그 위에 새겨진 금석문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 그 비밀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기원후 5세기경의 이 철기둥은 고대 인도인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지만, 인도의 야금술은 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크테시아스(Ctesias)는 페르시아왕에게 선물한 '인도의 칼' 을 말하고 있으며, 헤루도투스는 '인도산 화살촉' 의 뛰어남을 기록하고 있다. 1세기경의 또 다른 역사가 퀸투스 쿠르티오스(Quintus Curtios)는 알렉산더가 인도왕 포루스를 굴복시켰을 때 알렉산더가 포루스 왕으로부터 '인도의 철' 을 선물 받았노라고 적고 있다. 서술의 진위와 무관하게 이러한 표현은 고대 세계에서 인도에서 생산된 철의 품질과 야금술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 이후로도 중세가 지날 때까지 인도의 철과 야금술을 전설적인 경지로 끌어올린 것은 '우츠(Wootz)' 라 불렀던 인도산 철이었다. 이 철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수출되어 전투용 검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는데, 이것이 십자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소위 다마스쿠스 칼이다. 이 생산기술 역시 다 소실되었으나, 최근 부얼칼로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 다마스쿠스 칼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고대 야금술의 겉모양만 흉내 낸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새해에도 BTN과 함께
어두운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이고 밝은 마음은 항시 행복의 길을 튼다
성우스님 시집 '마음'발췌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tv 305번 UHD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